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55호 【루계 제24468호】 주체103(2014)년 2월 24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건하고있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건하고있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한광상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황병서동지, 마원춘동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전용남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의 지휘관들과 야영소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5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시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이곳을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과외교양기지로 전변시킬것을 직접 발기하시고 개건에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새로 개건하는 전투에 근위부대, 영웅부대로 자랑떨치고있는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를 파견하시였으며 건설에 필요한 모든 문제들을 몸소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지난해 11월부터 개건전투에 진입한 군인건설자들은 불과 3개월남짓한 기간에 이미 있던 건축물들의 내외부미장과 새로 건설하는 7개의 대상들에 대한 골조공사를 끝냄으로써 총공사량의 75%를 해제끼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야영각과 국제친선소년회관, 실내체육관, 실내수영관, 수족관, 조류사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개건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겨울철조건에서도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맞받아 뚫고나가며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야영각과 식당의 개건보수를 당에서 비준해준 설계의 요구대로 잘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아이들이 야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게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주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집단주의정신을 심어주는것과 함께 자립성을 키워주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야영생활기간에 제손으로 밥도 짓고 여러가지 음식도 만들어 먹을수 있게 그에 필요한 조건을 잘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제친선소년회관의 설계가 특별히 잘되였다고 하시면서 야영생들이 이곳에서 영화와 여러가지 록화편집물도 마음껏 볼수 있게 최신식영화보급시설과 음향설비들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넓고 시원하게 닦아놓은 운동장을 보시고 륙상주로를 만들어주고 축구장바닥에 인공잔디까지 깔아주면 아이들이 무척 좋아할것이라고, 이번에 야영소를 개건하면서 현대적인 실내체육관과 실내수영관도 새로 꾸려주고있는데 야영생들이 체력을 튼튼히 단련할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야영소에 수족관과 조류사도 새로 건설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세상에 이런 야영소가 없을것이라고,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인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야영생들이 야영의 나날을 즐겁고 재미나게 보낼수 있게 그에 필요한 각종 전자유희시설들과 문화오락기재들도 당에서 마련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개건사업은 올해 건설에서 중요한 대상이라고 하시면서 늘 강조하는것이지만 우리가 일떠세우는 모든 건축물들을 백년, 천년을 내다보며 건설해야 한다고, 힘이 들어도 질적으로 잘 건설해야 후대들에게 떳떳이 넘겨줄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건하는것은 아이들을 한평생 사랑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을 풀어드리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이 당의 의도대로 개건전투를 제기일에 끝내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사 설

당사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될 력사적인 대회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오늘부터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가 진행되게 된다.

혁명발전의 중대한 시기마다 당사상사업의 화력을 비상히 강화하여 사회주의건설전반에서 새로운 앙양기를 열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령도방식이다.

우리 당은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데서 당사상사업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전당적인 사상일군대회를 소집하였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당사상전선에서 사상포문을 일제히 열고 사상전, 선전선동의 된바람을 일으킴으로써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놓기 위한 투쟁에 천만군민을 총궐기시키려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신 40돐을 계기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위한 지난 기간의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긍지높이 총화하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토의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열리는 첫 사상일군대회인것으로 하여 이번 대회는 더욱더 의의깊은것으로 되고있다.

사상전의 힘찬 포성이자 혁명과 건설의 활력이고 승리적전진이다. 순간의 답보도 모르고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해나가는 선군조선의 약동하는 모습은 우리 당의 살아숨쉬는 사상사업, 드세찬 선전선동의 무궁무진한 위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당사상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 최후승리의 령마루에로 돌진하는 우리 조국의 비약의 기상은 더 높이 떨쳐지게 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원칙이다.》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시련을 헤치며 승승장구해온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투쟁행로는 언제나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에 최대의 힘을 기울여오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독창적인 사상중시령도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들의 사상이 기본이며 사상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사상론을 내놓으시고 혁명령도의 전기간 사상사업선행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오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사상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고 항일의 불길속에서 대중정치사업, 사상사업의 고귀한 전통과 경험을 창조하시였다. 당사상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도록 하시고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나설때마다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신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에서는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나게 되였다.

지금으로부터 40년전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고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한 당사상건설리론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신것은 우리 당사상사업발전에서 혁명적전환의 리정표를 마련한 특기할 사변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천재적인 사상리론적예지와 정력적인 령도밑에 당사상사업전반에서는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사상전의 불길속에 이 땅우에는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사상사업은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활력있게 진행되였으며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튼튼히 다져놓으신 불패의 정치사상진지가 있었기에 우리는 최악의 시련과 난관을 헤치며 선군의 길을 굴함없이 걸어올수 있었고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침략책동과 제재봉쇄속에서도 나라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울수 있었다. 사상의 위력은 무한대이며 사상중시로선을 틀어쥐고나가는 혁명적당은 백전백승한다는것이 우리 당과 혁명의 성스러운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당사상사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드팀없이 계승발전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드시여 주체의 사상론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오늘 당사상사업에서는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정치사상진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켜나가는데서 당사상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이번 대회를 전례없이 큰 규모로 조직하도록 하시였으며 대회의 성과적진행을 위하여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해나가는 중대한 력사적시기의 요구로 보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과업으로 보나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는 우리 당건설과 혁명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이번 대회는 우리 당사상사업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대를 이어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당사상건설령도업적은 우리 당과 혁명의 고귀한 재부이다. 여기에는 당사상사업의 사명과 임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해나가는데서 구현하여야 할 원칙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사상사업방침들이 얼마나 정당한것이며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하여주신 정연한 사상사업체계와 위력한 선전선동방법, 수많은 사상교양거점들과 강력한 선전일군력량이 얼마나 귀중한 밑천으로 되는가를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가슴뜨겁게 절감하고있다.

오늘 우리 당은 사상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철두철미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을 100%계승하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 빛내여나가는 원칙에서 풀어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있다. 지금 우리의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모든 사업을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가르쳐주신대로 해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 장구한 기간 사상의 위력으로 우리 당과 혁명을 백전백승에로 이끄시며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천세만세 빛내여나가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이번 대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중시로선과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해나가려는 우리 당사상일군들의 혁명적의지를 힘있게 과시하는 충정의 대회로 조국청사에 찬란히 기록되게 될것이다.

이번 대회는 혁명대오의 사상의 지적통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는데서 우리 당력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력사적분수령으로 된다.

우리 당은 전당이 수령결사옹위의 투철한 신념을 지니고 령도자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결속된 불패의 통일체이다.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혁명의 대가 바뀌고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될수록 더욱더 공고해지는 우리의 일심단결은 전당과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를 위한 투쟁의 고귀한 전취물이다.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사상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는것은 혁명위업계승완성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주체혁명위업이 새로운 력사적전환기에 들어선 오늘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다그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데 사상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는것은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이다. 우리의 모든 사상사업은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힘있게 뿌어주고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해나가도록 하는데로 지향되고 일관되여야 한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각급 당조직들과 선전일군들, 출판보도, 문학예술을 비롯한 모든 당사상사업부문들이 사상전의 포성을 더 힘차게 울려나갈 때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에 기초한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은 더욱 철통같이 다져지고 우리 당의 사상적일색화위업은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하게 될것이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는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는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사상사업의 위력을 최대로 높여나가는데서 새로운 전환의 리정표로 된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천하제일강국으로, 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으로 온 세계에 빛내이려는 우리 당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시며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필승의 위용을 높이 떨쳐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서 휘황한 래일을 확신하고있다. 온 나라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받들며 불굴의 영웅적투쟁을 벌리고있다. 지금이야말로 사상전, 선전선동의 집중포화로 천만군민의 앙양된 정신력을 계속 고조시켜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적혁신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하여야 할 때이다.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사상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그 실효를 최대로 높여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도식과 경직, 형식주의의 낡은 틀을 결정적으로 뿌리뽑고 당사상사업을 사람들의 심장에 투쟁의 불, 애국의 불을 지피는 살아숨쉬는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가야 한다. 당사상일군들에게 있어서 이번 대회는 비범한 령도예술로 천만군민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사상사업, 정치사업방법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적극 따라배우는 의의깊은 회합으로 될것이다.

사상일군들에 대한 우리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는 매우 크다.

우리 당은 대회참가자들을 비롯한 모든 당사상일군들이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진지를 지켜선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깊이 간직하고 당사상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해나갈것을 바라고있다.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당사상일군들은 이번 대회를 통하여 사상사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다시금 깊이 새겨야 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당사상사업령도사와 업적, 대원수님들의 뜻을 받들어 사상의 위력으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팀없는 의지를 심장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사상사업강화에 우리 혁명의 백두산혈통을 대를 이어 빛내이며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휘날려갈수 있는 결정적담보가 있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해나가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당사상일군으로서의 사명감과 영예를 자각하고 대회의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대회에서 토의되는 문제들을 통하여 지난 기간의 경험과 교훈을 깊이 새기고 앞으로의 사상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해나갈 결의를 굳게 가다듬어야 한다. 이번 대회가 40년전의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일군대회와 같이 사상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안아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기를 열어놓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조국청사에 특기할 자랑찬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여나가는 오늘의 총진군의 전렬에 우리 당사상일군들이 서있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높이 주체혁명위업,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영웅적진군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게 될것이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애국의 땀을 바치자

옥류아동병원과 전국의 소아병원들을 련결하는

먼거리의료봉사체계 새로 수립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보건부문에서는 또 하나의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우리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시고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돌려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최근 보건부문의 일군들은 옥류아동병원과 전국의 소아병원들을 련결하는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새로 수립하였다.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훌륭히 세워진것은 후대들을 제일로 위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만 꽃펴날수 있는 또 하나의 자랑찬 현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어린이와 녀성에 대한 의료봉사조직도 잘하여야 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민보건정책과 정보시대의 요구에 맞게 어린이들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개선강화하도록 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지난해 한여름의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몸소 옥류아동병원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뜨겁게 새겨안으며 보건성 일군들은 어린이건강관리에 힘을 넣고 의료봉사사업을 더욱 방법론있게 짜고들었다.

옥류아동병원이 훌륭히 일떠선데 맞게 성일군들은 지난해부터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의료상혜택이 더 잘 미치도록 하는데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성의 책임일군들부터가 직접 아래단위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주도세밀한 작전을 펼치면서 이 사업을 완강하게 밀고나갔다.

보건부문 일군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해당 당조직의 힘있는 정치사업이 큰 실효를 나타냈다.

체신성을 비롯한 련관단위의 일군들은 하루빨리 우리 당의 뜨거운 사랑이 어린이들속에 가닿도록 하기 위한 조건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었다.

남포시와 황해남도인민위원회에서는 조국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면서 앞장에서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었다.

보건부문과 련관단위 일군들의 이런 불같은 열의에 떠받들려 옥류아동병원과 전국의 소아병원들을 련결하는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세워지게 되였다.

도소아병원들과 전국의 시(구역), 군인민병원들사이에 먼거리의료봉사체계도 실현되게 되였다.

옥류아동병원과 전국의 소아병원들을 련결하는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새로 수립됨으로써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최상의 의료상편의를 보장하고 어린이건강관리에 크게 기여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였다.

첨단의학과학의 혜택도 오직 돈에 의해서만 좌우지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이런 꿈같은 은정을 받아안으며 우리 인민들은 사회주의보건제도에 대한 고마움으로 눈시울을 적시고있다.

지금 옥류아동병원을 비롯한 전국의 소아부문 의료일군들은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훌륭히 세워진데 맞게 그 운영을 정상화하며 사회주의무상치료제의 혜택이 어린이들속에 더 잘 가닿도록 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이번에 새로 수립된 먼거리의료봉사체계는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옥별

완공의 날을 앞당기며 힘차게 전진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원산군민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며 발전소건설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이곳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방대한 언제쌓기와 발전기실건축공사를 비롯한 여러 공사대상건설을 끝냄으로써 총공사량의 90%이상을 해제끼는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기 위하여서는 대규모의 수력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것과 함께 지방들에서 중소형수력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짧은 기간에 남은 공사대상건설을 다그쳐 끝내도록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전투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물길굴공사장의 가장 어렵고 힘든 구간을 맡고나간 일군들은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면서 힘있는 화선식정치사업으로 대중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특히 물길굴공사와 압력철관로조립공사에 필요한 대형양수기들을 비롯한 설비들과 자재보장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공사를 다그쳐 끝낼수 있게 하고있다.

마지막물길굴공사대상인 5, 6, 7, 8갱작업을 맡은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며 공사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도수산관리국대대에서는 여러가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공사에 받아들여 매일 맡겨진 물길굴뚫기과제를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김화군중대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수백m구간에 달하는 물길굴콩크리트치기를 끝낸 기세를 늦추지 않고 남은 구간에 총력량을 집중하고있다.

공사기일을 앞당기는데서 자기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금강군중대에서는 석수가 쏟아지는 불리한 작업조건에 맞게 양수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며 매일 맡은 공사과제를 1.2배이상 넘쳐 수행하고있다.

원산시중대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맡겨진 물길굴공사과제를 끝내고 다른 단위의 공사를 스스로 맡아 도와주어 물길굴공사기일을 앞당길수 있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고성군중대와 문천시중대에서도 콩크리트치기를 앞당길수 있는 가치있는 공법들을 공사에 받아들이고 압축기와 착암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공사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1호발전소와 2호발전소의 압력철관로조립공사를 맡은 문평제련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단숨에의 공격정신으로 압력철관로조립공사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특히 용접공들은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맡겨진 압력철관로조립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압력철관로제작과 발전기실의 설비조립을 맡은 단위들에서도 완공의 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2 000여명의 녀성들 농장 진출, 백수십개 분조 새로 조직

신계군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분조는 농촌경리발전과 농업생산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농촌의 말단단위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력사적서한을 커다란 흥분속에 접한 신계군안의 녀성들이 사회주의농촌진지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2 000여명의 녀성들이 군안의 농장들에 진출함으로써 백수십개의 분조가 새로 조직되였다.

군안의 모든 농장들에 분조들이 새로 조직되여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며 우리 당 농업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힘있는 시위로 된다.

농업전선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으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힘을 집중해야 할 주타격방향으로 정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되새겨보는 녀성들의 심장은 세차게 고동쳤다.

군당위원회일군들의 안해들이 알곡생산을 늘이는것으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전사,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 일념안고 남먼저 농촌진출의 기발을 들었다. 농사를 잘 지어 식량을 자급자족하기만 하면 적들이 아무리 책동하여도 우리 식 사회주의는 끄떡없다고 하면서 농장별로 나간 군당위원회일군들의 안해들은 땅이 제일 척박한 포전들을 맡겨달라고 하였다.

그들의 뒤를 이어 군인민위원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군인민보안서를 비롯한 군급기관, 기업소일군들의 안해들과 여러 부문에서 일하던 녀성들이 앞을 다투어 농촌진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떨쳐나섰다. 이들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농업부문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혁신의 봉화를 추켜들고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고 하면서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겠다고 하였다.

군에서는 여러가지 선전선동수단들을 동원하여 이들의 소행을 널리 소개선전하였다. 이와 함께 일군들은 농사일에서는 물론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는데 힘을 넣어 그들이 알곡생산을 늘이는데서 한몫하도록 하고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신흥, 백곡, 원교지구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 농장일군들의 안해들도 농촌진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길에 나섰다. 날이 갈수록 그 대렬이 계속 늘어나 2 000여명에 이르렀다. 그들속에는 보건부문, 급양 및 편의봉사부문을 비롯한 비생산단위들에서 일하던 녀성들도 있다.

군에서는 농촌진지강화에 떨쳐나선 이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해당 지역의 자연지리적특성과 농사조건을 고려하여 분조의 규모를 옳게 정하고 초급일군들을 선발배치하였다. 이와 함께 농사에 필요되는 물자들과 중소농기구들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그리하여 대평협동농장에 15개, 정봉협동농장에 13개, 구락농장에 12개, 읍협동농장에 7개의 분조가 조직된것을 비롯하여 군적으로 백수십개의 분조들이 새로 조직되였다.

군에서는 모든 농장들에 분조가 새로 조직되여 농촌진지를 더욱 강화할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데 맞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분조관리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나타나도록 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현지에 나간 군일군들은 그들이 분조농사의 주인이 되여 모든 농사일을 깐지고 알뜰하게 하도록 이끌어주고있다.

사회주의농촌으로 달려나가 농사조건이 불리한 포전들을 맡아나선 녀성들은 올해농사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것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서한에 제시된 과업을 빛나게 관철할 드높은 결의에 넘쳐있다.

군의 농장들에 새로 조직된 분조들은 알곡생산을 늘여 사회주의농촌테제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휘하는데서 크게 한몫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창길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농사차비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 대홍단군 창평농장에서 —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당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화선식으로 힘있게 벌리자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 참가자들을 만나보고

력사의 분수령에 울리는 신념의 메아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정치사상진지는 사회주의수호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보루이며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강화하는것은 우리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력사적인 대회에 참가하게 된 당사상일군들의 열의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우리는 대회참가자들을 만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높은 사상적각오와 신념의 확고부동성을 절감하게 되였다.

기자: 강국의 존엄과 기상이 온 누리에 떨쳐지는 주체혁명의 새시대에 열리는 이번 대회의 의의가 참으로 크다고 생각한다.

함경남도당위원회 비서 김규빈: 이번 당사상일군대회는 당의 불멸의 사상건설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사상전, 선전선동의 된바람을 일으켜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진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서 력사적리정표로 된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계 그 어느 나라와 민족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할 강성국가건설의 담대한 리상과 포부를 안고 신심드높이 전진하고있다. 이 장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강성국가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근본열쇠는 천만군민의 사상정신력을 총폭발시키는것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품속에서 자라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당사상일군들은 철두철미 사상론을 주장한다.

주체의 사상론! 이는 우리 당의 영원한 승리의 표대이며 선군조선의 강위력한 보검이다.

일부 나라들에서 수십년동안 건설되던 사회주의가 하루아침에 붕괴된 비극적인 사태가 력사에 남긴 교훈은 이루 말할수 없이 크다. 사상전선에 파렬구가 생기면 아무리 막강하다고 하는 경제력과 군사력도 맥을 추지 못하게 된다.

진정한 강대국은 사상의 강국이다. 당사상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여 사상의 위력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자, 이것이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선포 40돐을 맞이한 뜻깊은 시기에 당사상일군대회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의도가 아니겠는가.

력사적인 대회에 참가하니 당사상일군으로서의 성스러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있다는 자책을 금할수 없다.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참신한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사상을 발동하자, 이것이 대회를 계기로 새롭게 다지는 결심이다. 반드시 좋은 실천을 따라세워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함남의 불길이 도안의 이르는 곳마다에 더욱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겠다.

와우도구역당위원회 비서 정철남: 당사상전선에서 사상포문을 일제히 열고 집중적인 사상공세를 들이대는데서 우리 일군들이 서야 할 위치에 대하여 다시금 새겨보았다.

그 위치는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전투현장, 생산자대중의 창조적열정과 혁신의 기상이 나래치는 제1선참호이다. 지금껏 아래에 내려가 정치사업을 해왔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에 비해보면 너무도 멀었다는 생각이 갈마든다. 앞채를 멨다고 하여 선구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말할수 없고 북채를 잡았다고 하여 당사상일군의 구실을 다한다고 할수 없다. 문제는 자기 위치를 정확히 정하는것과 함께 사상전을 위한 창조적인 사색과 완강한 실천을 따라세우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에 들어와 우리 선전선동부 일군들이 경제선동대활동을 보다 활발히 진행하지 못한데서 교훈을 찾게 된다.

사상전, 선전선동의 된바람을 일으키는데서 우리 구역당위원회에서는 어느 고리에 힘을 넣어야 하겠는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새겨보며 그리고 여러 대상들을 참관하고 경험도 교환하면서 이것을 끊임없이 모색하고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에 맞게 당사상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지름길을 찾자고 한다.

단천청년전기기관차대 초급당비서 박일규: 크게 한 일도 없는 나를 당사상일군들의 대회합에 불러준 당에 무엇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40년전 2월에 열렸던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일군대회가 우리 당사상사업에서 획기적전환의 계기로 되였듯이 이번 대회가 주체혁명의 새시대 당사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이룩될 또 하나의 력사적분수령으로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회기간 우리 기관차대의 사상사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사업설계를 더욱 무르익히려 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 이것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우리 기관차대 당사업의 주선이라고 생각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이름지어주시고 오르시였던 영웅전기기관차 《붉은기》 1호가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의 앞장에서 달리도록 하며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해야겠다는 결심이 굳어진다.

신천군 새날농장 초급당비서 김원일: 우리 농장에서 배출된 여러명의 선군시대 모범선동원들과 함께 이번 대회에 참가한 나의 감격 역시 다를바 없다.

지난 기간 선동원들을 잘 준비시키고 그들을 발동하여 대중교양에서 적으나마 성과를 거두게 된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를 비롯한 력사적인 로작들에서 당사상사업의 방향과 방도를 명확히 제시해주시였기때문이다.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 천이 만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군중을 조직동원하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다. 대회에 참가하여 대중의 정신력발동을 위한 묘술을 더 많이 터득할 결심이다. 그리하여 올해에 농업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주타격방향으로 정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알곡증산으로 받들어나가겠다.

기자: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일군대회 참가자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감회가 깊으리라고 생각한다.

평안남도식료일용공업관리국 초급당비서 한정철: 수십년간 당사업을 해온 나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40년전 2월 19일, 력사의 그날이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중강군당위원회 비서로 대회에 참가하였던 나는 젊음에 넘치신 위대한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그이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는 행운을 지니게 되였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고 당사상일군들앞에 나서는 과업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열정에 넘치신 모습을 우러르며 나는 그이께서 바라시는 리상적인 당사상일군이 될 결심을 굳게 가다듬었었다.

대회에서 나는 영광스럽게도 전당의 사상일군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맹세문을 랑독하였다. 그후 여러 단위들에서 당일군으로 사업하면서 나는 그날의 맹세를 한시도 잊은적이 없다.

이번 대회기간에 그리고 돌아가서도 1970년대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경험을 새 세대 당일군들에게 널리 선전하려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이번 당사상일군대회에 참가하여 전당의 사상일군들에게 꼭 하고싶은 말이 있다.

1970년대 당사상일군들의 충정의 바통을 이어 오직 자기 령도자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우리의 정치사상진지를 철옹성같이 지키는 열혈투사가 되자고.

기자: 력사의 분수령에서 다진 결의대로 사업에서 반드시 비약을 일으키리라고 믿는다.

본사기자 김향란

1970년대 일군들이 지켜본다

◇온 나라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있다.

대회참가자들의 가슴가슴도 력사적사변의 체험자, 목격자로 되게 된 긍지와 희열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지금으로부터 40년전,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일군대회에 참가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직접 받아안는 영광을 지닌 전천착암기공장 초급당비서 최선화동무는 이렇게 토로하였다.

《정말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린 그때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이젠 됐구나! 우리 수령님의 혁명위업이 승승장구하게 되였구나!〉 하고 격정의 웨침을 터치였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니 1970년대의 흥분과 열기가 그대로 온몸에 미쳐옵니다.》

이것은 비단 그 일군의 심정만이 아니다.

이번 대회와 관련한 예보에 접한 때로부터 온 나라 당사상일군들과 인민들의 심장을 꽉 채우고있는 일념이다.

◇1970년대 당사상일군들의 투쟁정신과 일본새는 우리의 모든 사상일군들이 년대와 년대를 이어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일군들은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처럼 살며 투쟁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인가 일군들에게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은 당에 대한 충실성이 매우 높았고 일도 아주 잘하였다고, 그들은 자신께서 무슨 과업을 주면 현장에서 침식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제때에 무조건 집행하군 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당의 기초축성시기에는 일군들과 손을 잡고 일할 멋이 있었다고, 그들은 자신께서 한번 눈짓만 하여도 그 의도를 인차 알아차리고 직접 뛰여다니면서 밤을 새워가며 일을 책임적으로 해제끼였다고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1970년대 당사상일군들은 그 어떤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령도자의 사상과 의도를 충직하게 받들었다. 그들은 령도자의 위대성에 완전히 매혹되여 령도자의 뜻을 한몸바쳐 꽃피워나가는것을 한생의 더없는 영광으로, 행복으로 여기였다. 그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적인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관철을 위해서라면 물과 불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여드는 결사관철의 제일투사들이였다. 하기에 당사상일군들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당정책이 살아숨쉬고 당정책이 훌륭한 결실로 맺어지군 하였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의 사상정신세계와 혁명적일본새를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1970년대 당사상일군들이 오늘의 우리 일군들을 지켜보고있다.

주체혁명의 새시대에 살고있는 우리 당사상일군들은 이런 성스러운 자각을 안고 매일, 매시각 그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에 자신들을 비추어보며 사업하고 생활해야 한다.

그때의 일군들처럼 자나깨나 혁명의 령도자를 먼저 생각하며 령도자가 벽을 울리면 강산을 울릴줄 알아야 한다.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일군대회를 계기로 자기 사업을 완전히 일신하고 새 출발을 한 그때의 당사상일군들처럼 이번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를 계기로 사상사업에서 일대 전환의 포성을 울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여야 한다.

대회참가자들은 이번 대회를 몸소 소집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를 누구보다 민감하게 깊이 새겨야 하며 대회에서 지난 기간 사업에서 더 거둘수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과 극복방도들을 해부학적으로 명백히 찾아쥐여야 한다.

전당의 사상일군들은 이번 대회를 통하여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수로서의 자기 위치를 옳바로 찾고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과학연구부문을 비롯한 모든 부문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을 펄펄 끓게 하는 산정치사업방법들을 적극 탐구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오늘의 장엄한 투쟁에서 당사상사업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여야 한다.

교양마당에 수놓아진 량심의 일기

이른아침 숙소에서 나와 절세위인들의 자애로운 모습이 형상된 모자이크벽화에 인사를 드리고 남먼저 교양마당을 쓰는 한 대회참가자가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선전일군들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당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황해남도당위원회 일군인 최우현동무의 가슴속에서는 이런 량심의 목소리가 울리고있었다.

(과연 나는 도안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 우리 당의 진정한 전우, 동지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해 할바를 다하였는가.)

그는 언제인가 연안군에 내려갔을 때 시간이 바쁘다고 만나보려던 한 농장원을 종시 만나보지 못한 사실을 상기하며 스스로 이런 질문을 또다시 제기하였다.

—정녕 우리 당의 참다운 사상일군이라고 떳떳이 자부할수 있게 일해왔던가.

그뿐만이 아니였다. 깊은 밤 선전선동부 부부장들인 허성필, 김창일동무들과 함께 교양마당으로 나온 철도성 정치국 부국장 오룡하동무의 경우도 같았다. 철도운수부문에서 당사상일군으로 오래동안 일해온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사상사업을 화선식으로 보다 맹렬히 벌리였더라면 하는 자책을 하고있었다.

그런가하면 자강도당위원회 일군인 최순길동무는 어머니당일군은 골병이 든 사람,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일수록 더 뜨겁게 대해주어야 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맺혀있는 문제를 풀어주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뜨겁게 되새겨보고있었다.

결국 교양마당은 당사상일군들이 매일매일 량심의 거울로 자신들을 비쳐보게 하고 굳은 결심으로 새롭게 분발하게 하는 충정과 의지의 성스러운 출발점이였다. 그 교양마당에 수놓아가는 당사상일군들의 량심의 일기는 사상중시, 사상사업선행의 떳떳한 실록으로, 전국적범위에서의 사상전, 선전선동의 된바람으로 끝없이 이어질것이다.

그렇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 참가하는 일군들의 량심의 일기,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갈 당사상일군들의 불타는 충정의 맹세가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채인철

당의 믿음을 가슴에 새겨안고 선전선동의 된바람을 일으킬 열의에 넘쳐있는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 참가자들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사색과 열정으로 잠 못 드는 밤

참관을 마친 뒤

은천군당위원회 비서 장영찬동무는 밤깊도록 잠들줄 모르고 숙소의 창가에 서있었다.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중앙계급교양관을 참관하면서 받은 강렬한 충동때문이였다.

미제야수들이 감행한 신천대학살의 52일,

총과 칼로도 성차지 않아 야수처럼 달려들어 작두와 도끼, 톱으로 마구 탕치고 패고 켜며 신천의 무고한 인민들의 생명을 앗아간 미제침략자들, 그놈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번지며 그의 심중을 꽉 틀어잡았다.

이때 잠들었을줄 알았던 안악군당위원회 비서 오창훈동무가 조용히 곁에 다가섰다.

《동무도 잠을 이룰수 없는 모양이구만!》

《그래. 정신을 바싹 차리고 계급교양사업을 똑똑히 해야 하겠다는 자각이 드네.》

한동안 두 일군은 말이 없었다. 그러나 중앙계급교양관에 전시된 신천대학살만행에 대한 자료를 보던 일을 생각하면서 사업을 보다 혁신적으로 전개할 궁리를 하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 참가자들인 우리들부터 반제계급투쟁의 칼날을 서슬푸르게 세워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교양사업을 응당한 수준에서 진행할수 있다.

한 일군은 품속에서 꺼내든 수첩에 무엇인가를 깨알같이 써넣고있었고 다른 일군은 신천에서 학살된 사람들의 수자를 거듭 입속으로 외우고있었다.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지만 수많은 대회참가자들이 잠들지 못하고있었다.

열띠게 벌어지는 경험교환

《물고기를 많이 잡자면 뭐니뭐니해도 어구가 좋아야 해. 어구현대화를 위한 사상발동을 잘 해야겠어!》

《우리 사업소에서는 실지 매해 계획을 넘쳐 수행했는데 비결은 정치사업의 무대를 면바로 정한데 있네. 즉 어로공들이 일하는 바다 한복판으로 말이지!》

밤잠도 잊어가며 흉금을 털어놓고 경험교환을 하는 그들은 함경북도수산부문에서 온 대회참가자들인 리선철, 정승호, 진용언동무들이였다.

김책수산사업소 당일군인 정승호동무의 말에 의하면 당사상일군들의 이런 실질적인 경험교환은 장소에 관계없이 끊임없이 심화되고있었다.

수산부문만이 아니였다.

농업부문, 건설부문, 과학기술부문을 비롯하여 대회에 올라온 모든 당사상일군들이 참관지로 오가는 시간도 모자라 이들처럼 밤시간마저 아껴가며 열띠던 경험교환을 하고있었다.

대회참가자들이 들어있는 여러 호동의 숙소가 통채로 보다 참신하고 실효성있는 사상사업의 형식과 방법들이 탐구되는 하나의 거대한 교정으로 전변되고있었다.

여기에는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를 계기로 당사상일군인 자신들의 사업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오려는 대회참가자들의 굳은 각오와 열망이 비껴있었다.

본사기자 오철권

사상교양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나누고있는 대회참가자들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브루네이 다루쌀람 추장, 국가수반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반다르 세리 베가완

브루네이 다루쌀람 추장, 국가수반

하지 하싸날 볼키아흐페하

나는 브루네이 다루쌀람 국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가 좋게 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면서 당신이 건강하여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과 아울러 브루네이 다루쌀람 인민에게 끊임없는 발전과 번영이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3(2014)년 2월 23일 평 양

탄전에 몰아치는 선전선동의 불바람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를 계기로 개천탄광의 막장과 일터마다에 선전선동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고있다.

탄광안의 당, 행정일군들과 당초급선전일군들이 벌리는 드세찬 정치사업은 탄부들의 심장을 애국의 열정으로 높뛰게 하고있다.

서재갱과 류동갱에 들어간 일군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강성국가건설구상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가며 이야기해주었다. 동갱과 전진갱에 들어간 일군들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해설해주면서 석탄증산으로 원수님을 충직하게 받들자고 호소하였다.

일군들이 지핀 선전선동의 불길은 온 탄전에 타번져갔다. 탄광기동예술선동대원들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 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경제선동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갔다.

온 탄광을 들썩하게 하는 선전선동의 불바람에 의하여 석탄생산에서는 놀라운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로농통신원 전순희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 참가자들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 참가자들이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그들은 먼저 김보현선생님과 리보익녀사의 묘, 김형직선생님과 강반석녀사의 묘에 화환들과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묵상하였다.

이어 만경대혁명사적관에 들어선 그들은 주체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시여 광휘로운 빛발로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만경대일가분들의 고귀한 생애를 되새기며 전시된 사적자료들과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경건한 마음안고 고향집을 찾은 그들은 추녀낮은 초가집에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보면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독창적인 사상중시령도로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여 사회주의강국이 일떠서고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만년토대가 마련될수 있었음을 가슴뜨겁게 절감하였다.

참가자들은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수령결사옹위의 위대한 귀감이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안고 그이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렬사릉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정을 지니고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실현에 한몸바친 혁명선렬들의 고결한 혁명정신을 깊이 새겨안았다.

주체사상로작전시관을 찾은 참가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사상리론업적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우리 당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로작들에 담겨진 숭고한 뜻을 되새겨보았다.

참관을 통하여 그들은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투쟁행로에서 사상사업선행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업적과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나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독창성과 혁명성, 정당성을 다시금 깊이 체득하였다.

참가자들은 인민문화궁전에서 창성군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였다.

들끓는 시대정신이 맥박치고 로동의 보람과 불타는 열정, 전투적기백이 차넘치는 공연을 보면서 그들은 당의 의도를 받들고 예술선전, 예술선동의 위력을 더 높이 떨쳐나갈 결의로 가슴 불태웠다.

대회참가자들은 풍치수려한 대성산기슭에 반만년민족사를 집대성한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솟아난 평양민속공원을 참관하고 인민의 문화정서생활기지로 훌륭히 일떠선 미림승마구락부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였다.

【조선중앙통신】

(시) 2월의 강령은 영원토록 빛나리

장 명 길

성스런 붉은기 날리는
백두의 천고밀림에서
혁명의 첫걸음 떼신 불세출의 위인이
이 조선을 위해 품고 나서신
필생의 위업이였다

세기를 밝히는 빛나는 예지로
후손만대의 먼 앞날까지 다 내다보시며
인민에게 안겨준
불멸의 강령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세월은 멀어져가도
내 마음속에 가까이 다가서는 무포의 기슭이여
장군님 이어가신 사색의 시작은
수령님 헤쳐오신 백두의 험산준령
주체혁명의 초행길을
몇번이나 그 몇번이나 마음속에 넘어 보셨던가

이 나라의 령길과 들길
초소길과 구내길
수령님 모시고 함께 걸으시며
병사들과 인민들과 허물없이 나누시는 이야기
심장에 새겨오신 장군님

자주적인간의 참모습
자주화된 세계에로 가는 길을
등대처럼 밝혀준
김일성주의!
인류의 머리우에 진리로 빛발치는
오, 그것은
위대한 그 심장에서 타오른 불

그 불멸의 선언을 받아안고
격정에 설레이던 환희의 아침
그 력사의 봄우뢰는
수억만 인류의 가슴을 흔들며
이 행성을 진감했어라

이야기해다오
위대한 력사의 그 순간
당중앙창가에 소리없이 빛나던 새벽별들아

그날 그이 호흡하신 백두의 청신한 공기가
혁명의 머나먼 길에 어떻게 흘렀는가를

천만의 가슴에
주체의 숨결만이 흘러
혼연일체의 대오는 백배로 다져지고
고난의 광풍속에서도 승리의 길을 걸어온
주체의 내 조국 선군조선이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그 찬란한 빛발을 안고
사람들모두가
수령님의 뜻

장군님의 뜻으로 뭉쳐
천만이 일심의 대가정을 이룬 땅

력사의 2월 장군님 바라보신 그 미래가
눈부신 현실로 펼쳐지는 이 강산
우주를 날으는 우리의 위성
CNC화 무인화의 꿈이 꽃핀
새 세기 멋쟁이공장들
황홀한 인민의 거리 선경마을들

해빛찬란한 우리의 앞길에
펄펄 휘날리는 당기발의 붉은 기폭을
성스러운 공화국기를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더 붉게 물들이신
김정은동지
그 품에 운명을 맡긴 내 조국이여

강성번영하는 내 조국
인민을 하늘처럼 받드시는 원수님 품에
천만복이 꽃펴나는 이 강산은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나라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일심의 천만대오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더 높이 휘날리며
주체의 한길로 끝까지 가리라
오, 최후승리를 향해가는 조국땅우에
2월의 강령은 빛난다! 빛을 뿌린다!

(시) 나는 김일성-김정일주의자다!

류 동 호

내 삶의 숨결처럼
내 한생의 표대처럼
가슴속에 고이 안고 살며
때없이 심장으로 부른다
—나는 김일성-김정일주의자다!

그러면 마음속엔
뜻깊은 그 2월
그날의 환희가 설레이고
세월의 언덕을 넘어
못 잊을 추억의 파도가 밀려드나니

나를 강보에 싸안고
부모가 지어준 이름 있어도
이 심장에 소중히 지니고
격동하는 계승의 시대앞에
삶의 순간순간을 빛내온 그 부름

붉은 당원증과 함께
어머니당이 새 생명을 부어줄 때
내 삶의 근본
나의 온 생애가 비낀
고귀하고 신성한 그 부름
—나는 김일성-김정일주의자다!

걸음걸음 뒤돌아보면
장군님 따라온 선군혁명의 천만리에
내 작은 자욱도 한줄기로 이으며
나는 알았다 전사의 인생행로

생의 마지막길도 붉은기를 덮고 가는
참다운 영생의 삶을 알았다

보람찬 생활과 벅찬 투쟁속에서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넋이 된
주체의 인생관
떳떳이 자부하노라
그 신념으로 한생을 불태우는
선군조선의 혁명가임을 자랑하노라!

백두산의 줄기찬 혈맥
용용히 끓는 심장엔
주체형의 붉은 피만이 흐른다
태양의 궤도에 위성의 자리길이 있듯이
혁명의 수령을 받드는 오직 한길에
나의 삶의 길이 있다

그 어느 외진 산촌 밭이랑에
더운 땀을 뿌려가도 일편단심
쏟아지는 석수를 헤치며
천길 막장길을 걸어도 일편단심
당중앙가까이에 한마음 세워주는
심장의 속삭임이여
—나는 김일성-김정일주의자다!

추호도 변심을 모른다 전사의 신념
사선천리를 홀로 헤쳐도
설사 총구앞에 선대도
그 부름 고이 지니리

그 부름에 내 떳떳하리

억척불변의 그 의지
한생의 철리로 새겨안았기에
나는 본다
김정은시대의 찬란한 미래를 본다
사회주의부귀영화 꽃피는 웃음소리
주체위업 최후승리 축포성을 듣는다

환희로워라 긍지높아라
우리 맞이한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
가슴벅차게 안아보노라
인민이 그려보는 온갖 꿈과 리상이 꽃핀
천하제일락원 천하제일강국

우리 운명 우리의 온 세상인
아, 경애하는 원수님
결사옹위 전초선의 제일용사로
결사관철 돌격로의 제일기수로
인생의 행복과 영광을 빛내며
불같이 살리라 달음쳐 살리라

오,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하실
백두산대국의 태양 김정은장군
오직 한분 그이를 따라
하늘땅 끝까지 한길만을 갈
영원한 신념의 맹세를 심장으로 웨친다
—나는 김일성-김정일주의자다!

평안남도고려병원에서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의료일군들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짓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환자들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살뜰히 돌봐주는 의료일군들, 갖가지 약초들로 성의있게 만들어 한번 먹고 나면 금시라도 병이 나을듯싶은 질좋은 고려약들, 그 어디라없이 깨끗하면서도 훈훈한 입원실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도안의 주민들이 이들을 두고 한결같이 우리 의사선생님으로 다정히 부르는 리유에 대해 다 말할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치료예방사업의 발전과 의료봉사사업의 성과는 선진적인 진단과 치료방법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습니다.》

몇해전 겨울이였다.

병원의 일군들인 박경남, 림정숙동무들과 내과과장 김인철동무는 새로운 고려의학적치료방법의 확립을 위해 서로 마주앉았다.

당시 평안남도고려병원의 의료일군들은 약초를 끓이거나 태울 때 생기는 증기와 연기를 리용하는 훈증으로 활액막염, 추간판탈출증을 비롯한 난치성질환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잘하여 전국에 소문을 내고 있었다.

침구과과장 장재필동무를 비롯한 이곳 의료일군들은 피타는 사색과 탐구를 기울여 날이 갈수록 그 생활력이 증명되고있는 훈증치료의 효능을 보다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좋은 성과들을 이룩하고있었다.

하지만 여기에만 만족해할수 없었던 병원의 의료일군들은 이날 새로운 약물치료방법을 놓고 오래도록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밤은 얼마나 깊었는지.…

《물론 그 어떤 문헌자료에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약물치료에 대해 서술한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만 있으면 방도는 얼마든지 찾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심에 넘친 내과과장의 목소리는 일군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였다.

병원의 일군들은 비록 조건이 불리하고 난관이 있을지라도 짧은 기간에 맡겨진 과업을 훌륭히 수행할 불같은 열의를 지닌 과장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치료효과가 높으면서도 침이나 뜸, 주사와 같은 치료수단에 의한 불안감을 주지 않아 환자들에게 마음속안정을 가져다주게 될 새로운 고려의학적치료방법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은 결코 헐치 않았다.

하지만 과장을 비롯한 이곳 내과의료집단은 병원일군들의 적극적인 방조속에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긴장한 전투의 날과 날을 보냈다.

그 나날 여러가지 약초들의 치료효능을 확증하고 약물치료의 온도와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과장이 밝힌 밤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더우기 약물치료의 과학성을 담보하기 위해 그가 자기의 체질에 맞지 않아 지금껏 쓰지 않고있던 약을 일정한 기간 리용해왔다는데 대해서는 같은 과에서 생활해온 의료일군들조차 잘 모르고있었다.

그렇게 바쳐온 노력이 있어 이들은 짧은 기간에 고려약물치료를 보다 과학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수 있게 되였다.

《오래동안 산후탈로 고생을 많이 하였는데 신기하게도 여기서 고쳤다.》, 《확실히 고려치료가 우리 사람들의 체질에 맞는다. 신의학적치료를 몇해째 받으며 병이 더 악화되여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몸도 마음도 거뜬하다.》, 《내 비록 몸은 좋아도 지난 시기 침이나 주사라면 은근히 겁을 먹군 했었다. 그런데 아무런 아픔을 주지 않으면서도 호전기일이 빠른 치료를 받고 순환기계통의 질병을 고치고보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것이 어찌 내과입원실에서 우리와 만난 환자들의 목소리라고만 하랴.

훈증치료의 개척자로서의 영예를 안고 애써 노력하여 지난해에도 치료예방사업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룩한 침구과와 종양과, 소화기내과를 비롯한 여러 과에 입원한 환자들도 이곳 의료일군들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제는 자그마한 병이 생겨도 평안남도고려병원의 의료일군들부터 먼저 찾게 된다는 주민들의 호평속에는 훈증치료와 약물치료에 필요한 약초보장과 고려약생산에 자기들의 모든것을 묵묵히 바쳐온 약국의 약제사들에 대한 고마움의 목소리도 깃들어있다.

주민들 누구나가 좋아하는 고려의학적방법으로 더 많은 난치성질환환자들을 치료할 열의드높이 평안남도고려병원의 의료일군들은 지금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서로의 지혜와 열정을 합쳐가고있다.

본사기자 방 경 찬

당보를 비롯한 출판물들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신속정확히 보내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중앙우편출판물체송국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의 선구자들이며 혁명위업을 위하여 생을 바치고 공적을 남긴 혁명선배들을 후대들이 존대하는것은 혁명가들사이의 도덕의리에서도 더 숭고한 도덕의리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혁명선배들과 혁명전우들을 끝없이 아끼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는 전쟁로병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며 그들이 발휘한 투쟁정신을 적극 따라배우는 기풍이 날로 더욱 높아가고있다.

얼마전 대동강구역 청류1동 42인민반에서 살고있는 전쟁로병 리광호로인은 지난 여러해 동안 자기의 생활을 친혈육의 정으로 따뜻이 돌봐주고있는 동녀맹위원장 고향분동무와 동안의 녀맹원들의 아름다운 소행에 대하여 쓴 편지를 본사편집국앞으로 보내여왔다.

어느 한 기관에서 일하다가 년로보장을 받게 된 전쟁로병 리광호로인은 당의 사랑과 은정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일념으로 스스로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고있었다.

지금으로부터 몇해전 이 사실을 알고 리광호로인을 찾아온 고향분동무는 년로한 몸으로 부모없는 아이들까지 맡아키우느라 정말 수고가 많겠다고, 좀 더 일찌기 찾아오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때부터 전쟁로병을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였다.

고향분동무를 비롯한 동안의 녀맹원들은 텔레비죤을 비롯한 가정용품들과 여러가지 식료품, 부식물들을 성의껏 마련해주면서 리광호로인의 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을세라 늘 관심을 돌리고 자주 찾아가 힘과 용기를 안겨주군 하였다.

전쟁로병과 한가정이 된 이들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운 전쟁로병들을 존대하는것은 후대들의 마땅한 도리라고 하면서 리광호로인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그의 건강과 생활을 친혈육의 정으로 적극 돌보아주었다.

하기에 리광호로인은 때없이 찾아와 진정을 다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감동을 금치 못해하면서 앞으로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할것을 다짐하였다.

숭고한 도덕의리심과 뜨거운 인간애를 지니고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며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고있는 사람들속에는 선교구역 선교종합진료소 의사 최은주동무도 있다.

최은주동무는 우리 당이 아끼고 내세우는 전쟁로병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면서 몇해전부터 선교구역 선교2동 31인민반에서 살고있는 전쟁로병 림룡은로인을 위해 진정을 바쳐가고있다.

그는 정상적으로 림룡은로인의 집을 찾아 건강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군 하였으며 명절날과 생일날에는 성의껏 마련한 별식도 가져다주면서 전쟁로병을 기쁘게 해주었다.

어느해 겨울에는 자기가 정성다해 마련한 솜옷과 보약들을 안겨주면서 친혈육의 정을 기울여 주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다.

최은주동무는 림룡은로인뿐아니라 구역안의 여러명의 전쟁로병들의 건강과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어 주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다.

안창호, 방봉남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여러해전부터 전쟁로병들을 존대하고 그들의 건강과 생활을 돌봐주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가고있다.

이들은 동대원구역 동대원2동 1인민반에서 살고있는 전쟁로병 고임순로인의 집을 자주 찾아가 그와 한식솔처럼 어울리면서 친혈육의 정을 다하고있다.

전쟁로병들을 존경하고 잘 돌봐주는것은 후대들의 응당한 본분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한 리성국, 강철준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고임순로인의 건강을 위해 여러가지 보약들도 성의껏 마련해주어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다.

얼마전 고임순로인의 생일때에도 이들은 솜옷과 여러가지 식료품, 부식물들을 안고 찾아가 노래도 불러주면서 진심으로 축하해주었으며 그가 건강한 몸으로 락천적으로 생활하도록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더우면 더울세라, 추우면 추울세라 자주 찾으며 건강과 생활에 늘 관심을 돌리는 이들을 대할 때마다 고임순로인은 갈수록 더해만 가는 당의 사랑과 은정을 심장으로 더욱 뜨겁게 절감하게 된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충정다해 받드는 길에 모든것을 다할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은산군에서 살고있는 전쟁로병 안형국로인도 김학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소행을 전하여왔다.

김학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전쟁로병을 위해 살림집과 가정용품들도 마련해주면서 그가 아무런 불편없이 생활하도록 적극 도와주었으며 때없이 자주 찾아 살림살이 형편을 알아보고 땔감과 부식물도 해결해주군 하였다. 이들은 안형국로인의 건강을 위해 성의껏 마련한 보약도 안겨주었으며 그가 언제나 전화의 나날처럼 혁명적으로, 락천적으로 생활하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이밖에도 혜산시 혜탄동에서 살고있는 전쟁로병 박금녀로인은 량기철동무를 비롯한 혜산시 인민보안서 아래단위 인민보안원들의 소행을, 명천군 마산협동농장 농장원 김성철동무는 전쟁로병들을 적극 돌봐주고있는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소행을, 중구역 대동문동에서 살고있는 전쟁로병 박일혁로인은 최윤철동무를 비롯한 농업성 일군들의 소행을 편지에 담아 보내여왔다.

본사기자 홍 성 철

선동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벽동군 남중협동농장 제2작업반 6분조 김선희동무는 선동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지난 10여년동안 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려왔다.

그는 올해에도 분조원들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서한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분조원들을 불러일으키는 선동활동을 적극 벌리면서 가족들과 함께 많은 거름을 생산하여 분조포전의 지력을 높이고있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아안은 김선희동무는 그 사랑에 보답할 일념으로 가슴불태우며 언제나 남먼저 포전에 달려나가 농사일을 힘껏 다그치고있다.

그의 실천적모범에 감동된 분조원들은 당면한 농사일에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로농통신원 전 준 갑

대오의 기수가 되여

북창군 소창협동농장 제4작업반 1분조 선동원 리춘화동무는 대오의 기수가 되여 실천적모범을 보이면서 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리춘화동무는 많은 선동자료들을 착실히 준비해가지고 선동활동을 정황에 맞게 적극 진행해나가고있다. 지난해 여름 풀베기철에는 무려 1 000여t의 풀을 베여 련속 3년동안 매해 1 000t의 풀을 베여들이는 기록을 세웠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신년사와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서한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한마음안고 올해 농사차비로 들끓는 포전에서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대고있다.

그는 들끓는 포전에서 정황에 따르는 선동활동도 능란하게 벌리고있다. 이런 리춘화동무를 농장원들은 우리 선동원이라고 존경과 사랑을 담아 부르고있다.

농장원들은 그의 뒤를 따라 올해 농사를 착실하게 짓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조직전개하여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고있다.

로농통신원 차 인 환

로씨야련방대사관 성원들 해방탑과 쏘련군렬사들의 묘에 화환 진정

조국수호자의 날에 즈음하여 주조 로씨야련방대사관 성원들이 23일 해방탑에 화환을 진정하였다.

해방탑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화환진정에는 알렉싼드르 찌모닌특명전권대사, 드미뜨리 젤레즈니꼬브무관을 비롯한 로씨야련방대사관 성원들과 여러 나라 대사관 무관들이 참가하였다.

로씨야련방대사관의 명의로 된 화환이 해방탑에 진정된 다음 참가자들은 쏘련군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그들은 해방탑을 돌아보았다.

이날 로씨야련방대사관 성원들은 사동구역에 있는 쏘련군렬사들의 묘에 화환과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이딸리아와 로씨야에 갔던 조선직업총동맹대표단 귀국

이딸리아에서 진행된 세계직업련맹 위원장리사회 회의에 참가하고 로씨야를 방문하였던 김동선 직총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직업총동맹대표단이 23일 렬차로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은 나에게 두번째 생명을 안겨주었습니다》

심한 화상을 입은 왕봉화화교를 위해 바친 온성군 제2인민병원 의료일군들과 인민들의 지극한 정성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

조중 두 나라의 산과 들을 감돌아 흐르는 두만강변의 온성땅에 아름다운 친선의 이야기가 꽃펴났다.

얼마전 중국의 출판보도물들은 우리 나라 함경북도 온성군의 의료일군들과 인민들이 자기들의 피부를 서슴없이 바치며 심한 화상을 입었던 왕봉화화교를 기적적으로 소생시킨 사실을 널리 보도하였다.

이 소식은 중국의 각계층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감명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한결같이 중조친선관계발전의 아름다운 미풍, 동지를 위하여서는 자기의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조선의 사회주의제도에서만 있을수 있는 화폭이라고 하면서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조중친선의 력사우에 꽃펴난 또 하나의 감동깊은 이야기에 뜨겁게 공감하며 우리는 온성군으로 취재길을 달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중친선은 백두산의 천연수림과 같이 영원히 푸르청청할것이며 압록강의 도도한 흐름과 같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변함없이 계승되고 강화발전될것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29살의 왕봉화화교는 온성군 강안리에 살고있으면서 군편의봉사관리소 산성작업반에서 일하고있다.

심한 화상으로 사경에 처했던 왕봉화는 지금 기본적으로 건강이 회복되였고 이제 함경북도인민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고나면 또다시 본래의 혈기왕성한 모습으로 대지를 마음껏 활보할수 있게 된다. 아마도 그의 가슴은 생의 활력과 부푸는 희망으로 충만되였으리라.

하지만 우리와 만난 왕봉화는 눈물부터 주르르 흘렸다. 그의 목소리는 격동과 눈물속에 젖어있었다.

《이전에는 눈물이 없었지만 온성군 제2인민병원에 입원했던 그 나날을 돌이켜보면 눈물이 절로 나오는것을 어쩔수 없습니다.》

그가 목격하고 느끼고 체험했던 그 모든 사실들은 눈물없이는 돌이켜볼수 없는 참으로 감동적인 화폭이였다. 뜻하지 않게 심한 화상을 입은 왕봉화가 강안리에서 멀리 떨어진 온성군 제2인민병원으로 긴급후송된것은 지난해 10월 17일이였다.

전신 28%의 3도화상을 입은 환자의 상태는 매우 위급하였다. 환자는 화상성쇼크상태에 들어갈 정도에 이르렀으며 설상가상으로 중독성패혈증까지 겹쳤다. 시시각각 죽음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있었다.

병원의료집단은 지체없이 구급소생전투에 달라붙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이 사실을 보고받은 온성군당위원회 책임일군이 병원으로 찾아왔다.

군당에서 계획하였던 협의회까지 뒤로 미루고 달려온 책임일군은 환자의 병상태에 대하여 료해하고나서 모든 힘을 다하여 환자를 소생시키자고 의료집단을 힘있게 고무해주었다.

그날 병원에서는 의사협의회가 소집되고 구체적인 치료분담조직이 진행되였다.

기술부원장 문성철동무를 책임자로 하는 7명의 의사들로 집중치료성원들이 구성되였고 책임성높고 실력있는 의사 리철호동무를 담당의사로, 오랜 기간 간호장으로 일해온 경험있는 김명숙동무를 담당간호원으로 임명하였다.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환자를 기어이 소생시켜야 한다는 높은 자각과 함께 친근한 중국의 형제를 친혈육처럼 아끼고 구원하려는 혈육의 뜨거운 정이 불타고있었다.

그날부터 집중치료가 벌어졌다. 의료일군들은 교대로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치료에 진입한지 10여일만에 환자의 패혈증증세가 해소되기 시작하였고 이어 피부이식수술이 진행되였다.

1차피부이식수술은 지난해 11월 1일에 진행되였다.

그날 수술장복도는 사람들로 꽉 메워졌다. 환자의 피부이식수술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알고 왕봉화가 살고있는 강안리의 리당비서를 비롯한 일군들과 농장원들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하는 군편의봉사관리소 로동자들, 강안리진료소의 의사, 간호원들 등 수십명이 스스로 병원으로 달려왔던것이다. 저저마다 자기들의 피부를 먼저 떼내여달라고 열렬히 호소하는 그 모습은 수술장으로 들어서는 왕봉화의 눈굽을 뜨겁게 적셔주었다.

피부이식수술은 3차례 진행되였다. 그 나날을 돌이켜보며 왕봉화화교는 우리에게 말하였다.

《1차피부이식수술때 저에게 피부를 떼준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원장선생님, 리당비서동지, 작업반장동지… 그들은 모두 제가 아는 사람들이였습니다. 그래 저는 속으로 내가 정말 좋은 사람들속에서 살고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차피부이식수술이 진행될 때 저에게 주저없이 피를 바치고 피부를 떼여주는 낯모를 처녀들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저의 이름도 주소도 얼굴도 모르는 남남인 그들이 어떻게 저에게 피를 바치고 피부를 떼줄수 있겠습니까. …》

2차피부이식수술이 진행될 때 뜻밖에 준비해놓았던 혈액이 부족되였다. 긴급히 수혈해야 하였다. 그때 병원의 의료일군들과 함께 이곳에서 실습을 하고있던 함경북도간호원학교 종성분교 학생들도 참가하였던것이다.

너무도 고맙고 진정에 넘친 그들의 모습을 눈동자에 새기며 수술실로 들어서는 왕봉화의 얼굴은 온통 눈물범벅으로 변했었다.

3차례의 피부이식수술과정에 환자의 몸에는 100여명의 우리 의료일군들과 인민들이 바친 수십점의 피부가 이식되였고 수백㎖의 피가 수혈되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환자에게 돌려진 정성과 사랑에 대하여 다 이야기할수는 없다.

담당간호원 김명숙동무는 80여일간의 치료 전기간 단 하루도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고 환자간호에 온갖 정성을 기울이였다.

원장 송인철동무를 비롯한 병원일군들과 의사, 간호원들은 환자의 구미에 맞는 음식들을 마련해가지고 휴식일, 명절날이면 호실로 찾아와 한가정의 단란한 분위기를 꽃피웠다.

혈육의 뜨거운 정과 사랑은 마침내 기적을 안아왔다. 사경에 처했던 환자는 소생의 기쁨에 한껏 넘치였다.

지난해 12월 16일 저녁 왕봉화는 안해에게 아름다운 꽃송이들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날밤 꽃다발을 정히 엮어가는 그의 눈가에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자기를 위해 뜨거운 사랑과 정성, 친혈육의 정을 아낌없이 바친 고마운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는 그의 가슴은 격정으로 세차게 고패쳤다.

다음날 아침 그는 안해와 아들을 앞세우고 병원홀에 정중히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자애로운 모습을 형상한 유화작품을 찾았다.

《위대한 수령님, 위대한 장군님, 저는 이 세상에 두번다시 태여났습니다. 조선인민이 저에게 두번째 생명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고마운 인민을 키워주신 위대하신 대원수님들께 온성땅의 이름없는 화교 왕봉화 삼가 엎드려 인사를 올립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격정과 환희의 이 순간을 위해 아껴두었던가. 왕봉화의 눈가에서 눈물이 마를줄 모르는 샘처럼 끝없이 솟구쳐올랐다.

* *

왕봉화는 이번에 중국인민에 대한 우리 인민의 뜨겁고 진실한 형제적우애, 모두가 경애하는 원수님을 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한식솔, 친형제를 이루고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조선의 참모습을 감동깊이 느꼈다고 하면서 격정에 젖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확언하였다.

《저에게 바친 온성군인민들의 뜨거운 혈육의 정과 극진한 정성은 우리 중국인민을 친형제처럼 여기는 조선인민의 진실하고 두터운 친선의 정이였습니다. 조선인민이 나에게 안겨준 이 생명을 조선을 위해,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의 영원한 친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특파기자 리 은 남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 비약과 혁신의 불바람 휘몰아친다

군인정신, 군인기질, 군인본때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이 휘몰아치는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 혁명적군인정신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장병들은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요전구마다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강군의 위력을 계속 떨치며 대고조진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군인건설자들이 일하고있는 그 어느 전투장에서나 새로운 시대속도창조의 불길이 활화산처럼 타오르고있다.

조선인민내무군 군인건설자들이 신심드높이 힘차게 내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고 용기백배하여 떨쳐나선 이들은 이미 새해첫 한달동안에 2월에 수행하여야 할 토양개량제와 거름생산과제까지 앞당겨 해제꼈다.

그러나 이룩된 성과에 만족을 모르는 이들은 한줌의 토양개량제, 한t의 거름이라도 더 마련하여 올해 먹이풀생산의 과학적담보를 마련해나갈 통이 큰 목표를 제기하였다.

강추위와 무릎을 치게 내려쌓이는 눈, 살을 에이는듯 한 칼바람속에서 이것을 수행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하지만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앞에서 순간의 주저와 동요를 모르는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의 대답은 오직 하나, 결사관철이였다.

지휘관들이 대오의 앞장에 섰다. 이들은 단위별전투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운데 기초하여 전투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해나갔다. 군인건설자들도 흐르는 분과 초를 위훈으로 수놓아가며 날마다 실적을 높여나갔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려온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1만여t의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가 마련됨으로써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어찌 이들뿐이랴. 조선인민군 군인건설자들의 가슴마다에도 당이 번개를 치면 우뢰로 대답하는 조선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만방에 떨쳐갈 결의가 차넘쳤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총돌격전을 벌리고있던 조선인민군 림능순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앞에 2월말까지 1만 3천여t의 토양개량제와 흙보산비료원료, 2만 4천여㎥의 골재, 1천여㎥의 목재를 확보할데 대한 과제가 나섰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결사관철의 투사들인 영용한 군인건설자들은 충천한 기세로 떨쳐나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날마다, 시간마다 작업실적이 오르고있던 지난 2월 어느날, 토양개량제운반을 다그치던 군인건설자들앞에 뜻밖의 난관이 조성되였다. 많은 눈이 내리다나니 륜전기재들을 가동할수 없게 되였던것이다.

지휘관 량성학, 김원필동무들이 발구를 리용하자는것을 제기하였다. 이것은 모두의 지지를 받았고 즉시 실천에 옮겨졌다.

부대, 구분대별로 발구전이 경쟁적으로 벌어졌다. 조선인민군 리청섭소속부대의 원경남동무를 비롯한 지휘관들이 앞채를 메고 병사들과 함께 발구를 끌고 달리다싶이 하며 매일 많은 량의 진거름과 부식토를 운반해나갔다.

그 시각 조선인민군 김승렬소속부대의 지휘관들인 손금철, 신동철동무들은 생눈길을 헤치며 끝끝내 덩지큰 린회토매장지를 찾아내였고 군인건설자들은 골재수송과 목재확보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갔다.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열흘동안에 근 3천t의 진거름과 흙보산비료원료, 계획된 량의 80%에 해당한 골재와 목재를 확보해놓음으로써 2월전투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뜻깊은 2월의 하루하루는 이렇게 흘러가고있다.

력량을 집중하여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마련해가고있다.
—조선인민군 주동철소속부대에서—

완강한 실천력으로

세포군사단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용기백배하여 떨쳐나선 세포군사단의 성, 중앙기관돌격대들에서 전투목표를 높이 세우고 지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유기질비료생산에서 혁신 창조

경공업성돌격대가 지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섰다.

지력이자 곧 먹이풀의 정보당 생산량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한 이곳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많은 량의 거름원천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려 올해에 들어와 5천여t의 부식토도 마련해놓았다.

전투목표를 높이 세우고 분발해나선 인민봉사총국과 보건성돌격대 일군들은 주변의 곳곳을 밟으면서 진거름, 부식토를 비롯한 수천t의 거름원천을 찾아내였다. 그리고 그것을 제때에 운반하여 유기질비료생산을 다그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다.

돌격대원들은 올해의 보람찬 투쟁에서 개척자의 영예를 계속 떨쳐갈 드높은 각오를 안고 일제히 전투에 진입하여 높이 세운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해나갔다. 특히 인민봉사총국돌격대의 녀성소대원들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맡겨진 전투과제를 매일 넘쳐 수행해나갔다.

림업성과 건설건재공업성, 무역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돌격대들에서는 불리한 겨울철조건에서도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켜가며 유기질비료생산에서 혁신을 이룩하였다.

많은 흙보산비료원료를 확보

상업성과 전자공업성돌격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흙보산비료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주변의 여러곳에서 흙보산비료원료매장지를 찾아낸 이들은 짧은 기간에 운반할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립체전의 방법으로 전투를 벌려나갔다.

남먼저 일손을 잡은 일군들이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돌격대원들을 이끌어나갔다. 돌격대원들도 높이 세운 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해 이악하게 일해나갔다. 결과 이들은 수백t씩의 흙보산비료원료를 계획된 날자까지 운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고재판소와 외교단사업총국돌격대들에서도 로력조직을 짜고들고 운반수단을 총집중하여 많은 량의 흙보산비료원료를 마련해놓았다.

먹이풀생산의 과학적담보를 마련

수매량정성돌격대에서는 토양구조를 좋게 하여 먹이풀의 뿌리가 땅속으로 잘 뻗어내릴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드세게 밀고나갔다.

이와 함께 질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하루작업총화를 실속있게 진행해나갔다.

심경일, 김상근동무들을 비롯한 돌격대일군들이 대오의 기수가 되여 매일 1t이상씩의 흙깔이재료를 운반하였으며 돌격대원들도 하루과제를 넘쳐 수행하기 전에는 전투장을 떠나지 않았다. 결과 수백t의 흙깔이재료를 계획된 날자보다 훨씬 앞당겨 운반해놓았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려나간 최고검찰소와 금속공업성, 화학공업성돌격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도 많은 량의 토양개량제를 확보하여 올해 먹이풀생산의 과학적담보를 마련해놓았다.

애국충정의 분초가 흐른다

평안남도려단 평성시대대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사업을 통이 크게 작전하고 견인불발의 의지와 대담한 공격정신으로 힘있게 밀고나가 혁명과 건설에서 대변혁, 대비약을 이룩해야 합니다.》

여기는 평안남도려단 평성시대대의 거름운반전투장이다.

나붓기는 붉은기들, 심장의 피가 끓게 하는 속보판의 힘있는 글발들, 앞서거니뒤서거니 하며 거름운반을 다그치는 돌격대원들의 드높은 함성…

날씨는 맵짜고 찬바람은 더욱 기승을 부린다.

이른아침부터 떨쳐나 거름운반전투를 다그치는 이곳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구리빛얼굴마다에 열정의 땀방울이 흐른다.

—정보당 수십t의 질좋은 거름을!

목표는 높고 아름차지만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갈 올해의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될 일념으로 가슴불태우며 떨쳐나선 이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동무들, 오늘계획도 넘쳐 해제껴 대대의 전투력을 남김없이 과시합시다!》

선동원 안영성동무의 힘찬 호소가 차디찬 아침공기를 헤가르며 돌격대원들의 심장에 혁신의 박동을 더해준다.

마음속으로 경쟁을 걸고 와—와— 기세를 올리며 거름을 운반하는 돌격대원들에게 날개가 돋친듯 하다.

모두의 일손마다에서 불바람이 인다.

솜옷을 벗어제끼고 입김을 날리며 성수가 나서 질좋은 거름을 질통과 마대들에 푹푹 퍼담아주는 대대초급일군 리은철동무의 모습도 미덥지만 언제나 위훈창조의 불씨가 되여 대중을 혁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킨 대대일군 최광호, 곽성근동무들의 남다른 이신작칙은 또 얼마나 돋보이는가.

그런가 하면 자기들의 질통에 한삽의 거름이라도 더 담아달라고 떼를 쓰는 돌격대원 박대운, 김성, 김영호동무들의 승벽심도 여간 아니다.

소대들사이의 경쟁속에 1소대장 김춘길동무가 대원들을 바싹 다그어댄다.

전투장의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고 돌격대원들모두의 가슴마다에는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갈 맹세가 활활 타오른다.

들끓는 전투장에서 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해나가며 돌격대원들과 함께 거름을 운반하던 대대정치지도원 차성일동무가 흐르는 땀을 씻으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 애국충정을 안고 새해의 진군길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우리들이기에 하루계획을 넘쳐 수행하고도 성차지 않습니다.》

무심히 들을수 없는 그의 말을 증명하듯 전투장 곳곳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거름무지가 키돋움하며 솟아난다.

무져놓은 거름의 질적상태를 따져보던 대대일군 김영남동무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어린다.

현장속보판에 강충성동무가 혁신의 새 소식을 큼직한 글씨로 써나간다.

《오후 4시현재 오늘계획 105%로 넘쳐 수행!》

모두의 얼굴에 승리자의 긍지가 한껏 어리고 전투장은 또다시 들끓는다.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키며 애국충정의 분초를 이어온 이들의 억센 기상인양 곳곳에서 붉은 기발들이 더욱 세차게 펄럭인다.

위훈창조의 선구자들

조선인민군 군관 강금철동무는 어렵고 힘든 일이 제기될 때마다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미더운 지휘관이다. 그는 당을 받드는 길에서는 말보다 실천을 앞세워야 한다는것을 명심하고 높은 투신력으로 군인건설자들을 위훈의 창조자로 키워나가고있다.

또한 대담한 작전과 지휘, 완강한 실천력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감으로써 단위가 맡겨진 전투과제를 앞당겨 끝내도록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유원지총국돌격대 대장 리봉성동무는 일욕심이 많기로 소문난 일군이다. 그는 어떤 작업과제를 받아도 그것을 제일먼저 질적으로 끝내기 위해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고 대오의 기수가 되여 이신작칙으로 돌격대원들을 이끌어나가고있다.

작업과제수행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모르고 요구성을 높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인정미가 넘치는 그를 돌격대원들모두가 존경하며 따른다.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 서철호동무는 우리 식 대규모축산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에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특히 그는 여러 전투장들을 종횡무진하며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에게 지력높이기와 땅다루기, 적지선정 등 먹이풀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설해주고있다.

뿐만아니라 지난 시기에 거둔 과학연구성과들도 현실에 적극 도입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애쓰고있다.

오늘도 그는 대규모의 축산기지로 전변될 세포등판의 래일을 그려보며 당의 원대한 구상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함경남도려단 허천군대대 허철민동무는 누가 보건말건 맡은 일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는 미더운 돌격대원이다. 대대앞에 어렵고 힘든 일이 제기될 때마다 그는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하루과제를 늘 넘쳐 수행하면서도 집단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가는 그를 돌격대원들은 대대의 보배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강금철동무

리봉성동무

서철호동무

허철민동무

혁명적랑만에 넘쳐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는 자강도려단 전투원들

토양구조를 좋게 하는 땅다루기방법

우리 평안남도려단 안주시대대가 개간한 땅은 대부분 토심이 낮은 질메흙땅이다. 그러나 우리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이런 땅에서 먹이풀생산성과를 높일수 있는 현실성있는 방도를 찾아쥐고 완강한 돌격전을 벌려 성과를 높여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늘 머리를 쓰고 작전을 잘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야 합니다.》

땅다루기를 소홀히 하면 먹이풀의 뿌리가 잘 뻗지 못하고 생육에 지장을 주게 된다. 때문에 이 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은 먹이풀생산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지난해 우리는 일부 포전에 정보당 20t이상의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내고 먹이풀씨를 뿌렸다. 키가 한뽐정도 될 때까지는 먹이풀들이 하나와 같이 잘 자랐다. 그런데 그후부터는 먹이풀의 생육이 거의나 억제된듯 더 자라지 못하였다. 원인은 먹이풀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데 있었다. 결국 먹이풀들은 토양속의 영양물질이 아니라 겉층에 시비한 유기질비료만을 흡수하다나니 성장에 지장을 받게 되였던것이다. 그리고 이런 땅에는 물이 잘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에 가물과 큰물의 피해도 쉽게 받을수 있었다.

지난해 인공풀판조성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는 과정에 우리는 씨붙임전 땅다루기의 중요성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였으며 먹이풀생육에 좋은 조건을 마련해줄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였다. 그리고 올해의 먹이풀판조성에서는 이 방법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그것이 바로 석탄재와 질좋은 유기질비료로 토양을 좋게 하는 땅다루기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싹이 튼 씨앗에서 갓 내리기 시작한 뿌리는 연약하기때문에 지력을 높여야 땅속으로 잘 뻗을수 있다.

지난해의 교훈을 놓고 기술자들은 물론 토배기들과도 마주앉았다.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우리는 석탄재와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토양개량제로 리용하면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한걸음 더 깊이 들어간 우리는 그 방법을 완성하기 위해 대담하게 결심하고 토지개량전투를 조직하였다. 여기서 기본은 토양구조를 땅속 40~50㎝정도의 깊이까지 좋게 하는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석탄재를 깔기 위한 전투를 내밀었다. 원천이 부족한 조건에서 우리는 수백리 떨어진 곳에까지 나가 석탄재를 확보하고 집중수송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시책임일군들과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더 많은 석탄재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도 통이 크게 내밀었다.

이와 함께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업도 방법론있게 진행하였다.

토양구조를 일정한 깊이까지 좋게 하자면 유기질비료가 계획된 량보다 2.5배이상 필요하였다. 그런데 유기질비료원천은 있었으나 그 질을 더 높이자면 적지 않은 기간이 걸리였다.

우리는 씨붙임철전까지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우선 잘 썩은 거름을 따로 무져놓고 진거름도 확보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가지 거름원천과 섞어 균처리를 하였다. 결과 생산기일이 훨씬 앞당겨진것은 물론 그 질도 높아졌다.

이렇게 올해의 먹이풀판조성에서 큰 은을 낼수 있는 현실성있는 방도를 찾아쥔 우리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모두가 자신심을 가지고 힘찬 전투를 벌리고있다.

평안남도려단 안주시대대 대대장 김광덕

전투력이 강한 단위로 되기까지

평안북도려단 신의주시대대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후방사업은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중요한 정치사업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평안북도려단 신의주시대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새해에 들어와서도 자기들의 전투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다.

대대별사회주의경쟁도표에 올라가는 붉은 줄이나 당면한 토양개량제생산실적만 놓고 말하는것이 아니다.

알뜰하게 꾸려진 침실에서도, 그쯘하게 갖추어놓은 여러가지 작업도구들과 지방자재를 리용하여 일떠세운 자체의 축산기지에서도 집단을 귀중히 여기는 이곳 돌격대원들의 깨끗한 마음을 엿볼수 있다.

대대가 이렇듯 전투력있는 집단으로 되기까지에는 언제나 돌격대원들을 위해 애쓰는 대대일군들의 노력이 깃들어있다.

지력을 높이기 위한 토양개량제생산이 한창이던 때였다.

분과 초를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는 돌격대원들의 모습은 대대일군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하루빨리 앞당겨 끝내기 위하여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자.

이런 결심을 더욱 굳히며 대대일군들은 돌격대원들의 생활조건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천해나갔다.

침실도 더 잘 꾸려야 하였고 자체의 축산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과 땔감문제해결을 비롯하여 일감들이 적지 않았다. 돌격대원들과 함께 생활하며 일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여가시간이란 작업의 쉴참이나 저녁시간뿐이였다.

하지만 아늑한 보금자리에서 풍성한 식탁을 마주하고 기뻐할 돌격대원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대대의 모든 일군들은 이악하게 노력하였다.

돌격대원들의 생활을 돌보느라 밤잠도 잊군 한 대대일군들인 박성일, 류정철동무들, 자체의 축산기지건설과 염소, 닭, 오리를 비롯한 집짐승들을 확보하기 위해 휴식도 미루어간 전성철, 안향전, 최선남, 리진주동무들을 비롯한 대대초급일군들,

자기를 바칠줄 아는 이런 일군들이 있어 대대의 생활토대는 튼튼하게 마련되여나갔고 돌격대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언제나 웃음꽃이 피여났으며 이것은 곧 높은 작업실적으로 이어졌다.

언제나 돌격대원들의 맏형, 맏누이가 되여 진정을 바쳐가는 대대일군들을 시의 책임일군들이 적극 도와나섰다. 이들은 축산기지건설장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예비부속품들과 작업도구들은 물론 돌격대원들의 생활에 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하여 보내주었다.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앞당겨 실현하는 길에서 자기들이 서야 할 위치를 심장에 새기고 사는 대대일군들은 오늘도 혁신의 밑거름이 되여 돌격대원들을 위해 헌신의 땀을 바쳐가고있으며 그들을 위훈의 한길로 이끌어나가고있다.

봄을 앞당기는 사람들

황해북도려단 사리원시대대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을 사랑하지 않고 조국을 위하여 투쟁하지 않으며 조국에 이바지한것이 없는 사람은 조국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어머니조국의 참다운 아들딸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자정을 가까이 한 때여서 사위는 질은 어둠속에 잠기였다. 사납게 불어대는 바람만이 땅우의 모든것을 날려보낼듯 기승을 부린다. 그속에서도 황해북도려단 사리원시대대의 일군들인 김홍철, 윤명수동무들과 돌격대원 차영삼, 리성혁동무들은 토지개량에 필요한 흙깔이재료를 원토장에서부터 기본도로까지 운반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다음날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흙깔이재료가 담긴 무거운 마대를 메고 경사지를 오르내리는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땀이 비오듯 흐르고있었다.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대대정치지도원 윤명선동무의 가슴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이 시작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언제나 대오의 앞장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위훈창조의 불씨가 되여온 그들이였다.

새로운 시대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이들과 함께 걸어온 잊지 못할 나날들을 돌이켜볼수록 정치지도원의 가슴은 후덥게 달아올랐다.

이들이 서로 돕고 이끌며 한창 일손을 다그치고있던 그때였다. 고요한 정적을 깨치며 어디선가 울려오는 자동차의 발동소리, 이윽고 현장에 도착한 자동차에서 불쑥 내리는 소대장 박철남동무와 운전사 강원길동무,

이제는 깊은 잠에 들었으리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뜻밖에 나타나자 한동안 어리둥절해 있던 정치지도원은 날이 밝으면 또 전투를 벌려야겠는데 이렇게 나오면 되겠는가고 하면서 당장 돌아가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들도 뜻깊은 올해를 긍지높이 추억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천금같이 귀중한 오늘의 하루하루를 기적과 위훈으로 빛내이고싶은것이 우리들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작업장에 뛰여든 이들은 그날밤 많은 량의 흙깔이재료를 운반해놓았다.

그렇다. 애국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것이다.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이곳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이어온 위훈창조의 그 나날들이 있어 대대는 맡겨진 과제를 제기일내에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게 되였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황해북도려단 전투원들

온 겨레의 기대에 보답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의 통일기운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가고있으며 전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와 지향은 꺾을수도 없고 막을수도 없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과 번영을 위한 우리의 주동적이며 성의있는 노력에 의해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고있다. 북남사이의 비방중상과 모든 군사적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고 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갈데 대한 우리의 중대제안과 공개서한, 그에 따르는 대범한 실천적조치들은 북남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킬수 있는 가능성과 조건을 마련해주고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궤도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온 겨레의 투쟁도 날로 적극화되고있다.

지난 2월 8일 제14차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가 진행되였다. 범민련 북측본부와 남측본부, 해외본부사이에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2014년 범민련의 활동방향이 토의되였다. 이어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공화국의 중대제안과 조치들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고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리행하기 위하여 앞장에서 노력하며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려나갈것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남조선의 사회 각계와 광범한 인민들도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들을 열렬히 지지찬동하면서 당국이 《5.24조치》를 해제하고 자유로운 민간교류를 허용하며 협력사업의 재개를 위한 조치들을 조속히 취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종교단체가 론평을 발표하여 흘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시작으로 《5.24조치》가 해제되고 금강산관광이 재개되는 등 북남사이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 대화가 이루어지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비롯한 중요한 합의들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힌것은 그 한 실례이다.

현실은 세기와 년대를 넘어 지속되고있는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력사를 끝장내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가 얼마나 강렬한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북남관계개선은 어느 일방의 리익을 위한것이 아니라 민족모두의 리익을 위한것이며 민족의 통일적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것이다. 조국통일이라는 민족공동의 큰 리익을 보지 못하고 협애하게 자기의 주의주장과 리해관계에만 매달린다면 불신과 대결의 골만 깊어질뿐 화합과 단결은 어느때 가도 이룩될수 없다. 근 70년간에 걸치는 민족분렬의 력사는 북과 남이 대결로 얻을것이란 아무것도 없으며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통일, 번영을 이룩하자면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것을 교훈으로 새겨주고있다. 오늘 해내외의 우리 겨레가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력의 활성화로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할것을 일치하게 요구하고있는것도 바로 그때문이다.

지금 북과 남사이에는 긴장완화와 평화보장,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의 추진 등 절실한 문제들이 해결을 기다리고있다.

북남관계문제와 관련하여 언제까지나 론쟁이나 하며 허송세월하는것을 시대와 민족은 용납치 않는다. 사상과 제도의 차이는 결코 불화와 적대행위의 원인이 될수 없다. 부당한 구실과 주장, 요구와 조건을 내대며 북남관계개선을 질질 끈다면 그것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는 태도와 립장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의 불신과 오해만 더해줄뿐이며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북남관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실천행동만이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여는 결정적조건을 지어주게 될것이다.

지난 12일과 14일 북과 남은 판문점에서 고위급접촉을 가지고 여러가지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였으며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북과 남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흘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예정대로 진행하며 호상 리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것을 선언하였다. 이번 공동보도문의 발표는 북과 남이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행동에 나선다는것을 내외에 선언한것이다.

공동보도문의 발표는 남조선 각계의 지지환영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당은 이번 북남고위급접촉을 통해 북과 남이 대화로 신뢰를 쌓아가는 새로운 장이 펼쳐지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언론들도 북남고위급접촉에서 의견차이를 극복하고 합의를 이끌어낸것을 북남관계발전의 첫걸음을 내디딘것으로 평하면서 북남대화의 조건과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경향신문》은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대화가 항시적으로 열려야 한다, 북남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금강산관광을 다시 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보도하였다. 《중앙일보》도 이번 접촉을 계기로 대화의 분위기를 살려나가야 한다, 장관급회담이나 총리회담으로 대화의 격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민족적화해와 단합에 대한 겨레의 기대와 희망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서 서로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결정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이다. 북과 남은 해내외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대로 낡은 시대의 대결관념을 대담하게 털어버리고 보다 대범하고 통이 큰 실천적조치로 북남관계개선을 적극 도모해나가야 한다. 북과 남은 능히 하나의 민족, 하나의 겨레로서 화합하고 단결할수 있으며 자주통일을 실현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힘있고 번영하는 민족으로 자랑떨칠수 있다.

북과 남이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된 우리 민족끼리의 관점과 립장에 서서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된 문제토의에 진지하게 림하며 실천적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해나간다면 얼마든지 겨레의 기대에 보답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심철영

굳건히 이어지고있는 참다운 민족의 얼, 민족의 대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격정 토로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였던 홍인흠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회견에서 그는 찬란한 민족문화전통이 굳건히 계승발전되고있는 조국을 해외의 전체 동포들은 끝없이 동경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회주의조국땅은 민족의 혈맥이 높뛰는 민족성의 대화원을 이루고있다.

과거 일제는 우리 나라 강점기간 가장 야수적인 방법으로 그 어느 침략사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민족말살정책을 감행하였다.

우리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 징병과 징용, 성노예범죄를 감행하고 말과 글, 성과 이름까지 빼앗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그러나 단군민족의 혈맥은 끊어지지 않았으며 민족재생의 려명은 밝아왔다.

공화국은 민족사를 바로잡아 자기 궤도에 올려세웠을뿐아니라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민족의 현대사를 영광으로 장식했다.

민족풍속이 국가적시책으로 장려되고 문학예술전반이 민족전통에 토대하여 현대적미감에 맞게 발전하고있다.

주체성과 민족성이 확고하고 민족의 넋과 기상이 높이 떨쳐지고있는것이 오늘 공화국의 자랑찬 현실이다.

우수한 전통과 문화, 유구한 력사가 있고 고유의 멋과 향기가 있는 자랑스러운 이 땅은 민족의 빛나는 오늘과 광명한 래일을 기약하고있다.

남들이 《세계화》의 풍랑에 휘말려들어 사회주의를 줴버리고 몇푼의 돈에 민족의 존엄마저 팔고있을 때 그 어떤 유혹이나 강권행위에도 끄떡하지 않고 주체성을 참답게 지켜냈다. 하기에 내 조국은 세인이 우러러보는 주체의 나라로, 자주의 성새로 지구의 중심에 우뚝 서있는것이다.

그는 위인이 있는 곳에 민족의 참모습이 있고 그 위대함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의 제일가는 애국자, 민족정기의 으뜸가는 체현자들이시다.

누구보다도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민족을 위하시는 마음이 뜨거우신 대원수님들께서는 태양민족의 존엄을 누리에 빛내여주시였다.

파란만장의 세파속에서도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찬란히 빛내여나가신 절세의 애국자들께서 계시였기에 오늘의 강위력한 사회주의조국이 있고 민족의 창창한 미래가 담보될수 있었다.

절세의 위인들을 모시여 참다운 민족의 얼, 민족의 대가 굳건히 이어지고있으며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사가 빛나고있다.

오늘 태양민족의 진두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신다.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은 더욱 번영할것이다.

우리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선군조선의 존엄과 승리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민족의 찬란한 력사와 문화전통을 빛내이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겠다.

【조선중앙통신】

전쟁연습계획을 철회하라

여러 나라 정당, 단체가 요구

스위스 이딸리아어지역공산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중대제안을 지지하고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책동을 반대하여 1일 스위스주재 남조선대사관에 편지를 보내였다.

편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중대제안이 협조와 공동의 복리를 도모하는 고무적인 제안이라고 간주한다.

동시에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벌리려는 합동군사연습은 매우 온당치 못한 행위로 된다고 본다.

이 군사연습은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태롭게 할뿐아니라 남조선인민들에게도 해를 주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이 도발과 적대행위를 끝장내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는것과 함께 조선국방위원회 중대제안을 받아들일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요구를 접수할것을 희망한다.

* *

오스트리아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로조원들의 련대성위원회가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중대제안을 거부하고있는 남조선당국에 항의편지를 보내였다.

편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중대제안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분렬된 강토에서 고통을 겪고있는 조선민족을 위해서는 전쟁책동대신에 평화적인 대화를, 부단한 군비증강이 아니라 신뢰조성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제안을 받아들이고 북남대화를 추진하며 동족을 겨냥한 전쟁연습계획을 철회할것을 요구한다.

남조선당국의 앞으로의 처사는 그들이 진정 대화와 조선반도의 평화통일을 바라는가 하는것을 보여주게 될것이다.

세계직업련맹에 망라된 진보적인 로조원들은 사태발전을 주시할것이다.

중국 일본이 무기급핵물질을 보유하고있는데 대해 우려 표시

중국외교부 대변인 화춘영이 17일 정기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무기급핵물질을 보유하고있는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는 일본이 수십개의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무기급핵물질을 포함하여 많은 량의 핵물질을 오래동안 보관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우려하고있다고 하면서 중국측도 강한 우려를 표시하며 일본측이 이에 대해 설명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이 핵전파방지의무를 엄격히 준수할것을 요구하였다.

심각한 실업문제

－미국에서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실업자가 늘어나고있다.

13일 미로동성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8일까지의 지난 1주일동안에 전국적으로 새로 등록된 실업자수가 33만 9 000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이것은 그 전주에 비해 8 000명 더 많은것이라고 한다.

－오스트랄리아에서 올해 1월에 실업자수가 지난해 12월에 비해 1만 6 600명 더 늘어나 72만 8 600명에 달하였다. 최근 이 나라 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영국에서 지난해 4.4분기에 실업자수가 234만명에 달하였다. 결과 나라의 실업률은 7.2%에 달하였다. 19일 이 나라 중앙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만지역 나라들사이의 련대성을 강화할것을 호소

이란대통령 하싼 루하니가 최근 한 외교석상에서 페르샤만지역 나라들사이의 련대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만지역 나라들사이에 련대성을 강화해야 지역의 안전을 회복할수 있다고 하면서 특히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되는 테로와 극단주의를 근절할것을 호소하였다.

이란의 평화적핵기술개발 지지

알제리민족인민회의 의장이 17일 이란방문과정에 이 나라 국가복리리사회 위원장과의 상봉석상에서 이란의 평화적핵기술개발을 지지하는 자기 나라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서방은 저들이 핵기술을 독점하던 시대가 끝장나게 되는것을 우려하면서 이란과학자들의 핵기술개발을 한사코 막아나서고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는 세계 모든 나라들은 평화적목적의 핵기술을 개발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간첩활동을 한 미국외교관들을 추방

베네수엘라정부가 외교관의 탈을 쓰고 간첩활동을 한 미국인들을 추방하였다.

이 나라 외무상 엘리아스 하우아 밀라노는 17일 까라까스에서 있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조치에 따라 자기 나라 주재 미국대사관 직원 3명이 48시간안으로 추방되게 되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자들이 사증을 내여준다는 구실밑에 대학들에 기여들어 이미 저들이 키워놓은 대학생폭력단체 책임자들을 만나려 하였다고 폭로하였다.

이처럼 다른 나라에 폭력을 조장시켜놓고 정부로 하여금 그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고는 이를 걸고 그 나라 정부를 비난하는 깜빠니야를 일삼는것이 바로 미국의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그는 까밝혔다.

항의집회와 시위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19일 당국의 부당한 경제정책에 항의하는 대중적인 집회가 벌어졌다. 로조의 호소에 따라 벌어진 집회에는 약 5 000명의 농민들이 참가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당국이 경제위기수습을 구실로 농민들에게 이전보다 3배나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려 하고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다. 집회를 마친 후 그들은 시내거리들을 따라 행진하면서 농민들을 비참한 처지에 빠뜨리게 될 그릇된 긴축조치들을 당장 철회할것을 당국에 요구하였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캄보쟈에서

캄보쟈에서 올해 국내총생산이 7%이상 장성할것이 예견되고있다.

특히 농업, 옷수출, 관광부문에서 많은 성과가 이룩될것이라고 한다.

17일 이 나라 수상이 이에 대해 밝혔다.

웰남에서

웰남이 최근 대외무역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17일 세관당국은 자기 나라가 1월에 력사상 최고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이 나라의 주요수출품에는 석탄, 옷, 신발류, 목제품, 흰쌀 등이 속한다고 한다.

필리핀에서

필리핀정부가 2016년까지 빈궁률을 현재의 25.2%로부터 18%로 낮출것을 계획하고있다.

17일 정부는 계획실현을 위해 일자리를 더 많이 조성하여 실업률을 낮출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정부가 17일 농촌개발을 위한 10개년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은 농촌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들을 마련하여 빈궁을 청산하며 농민들의 수입을 늘이고 보건 및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한다.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지난해 12월에 8만 3 336t의 천연고무를 수출하였다.

이것은 그 전해 같은 달에 비해 11.5% 더 많은것이라고 한다.

최근 이 나라 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남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에서 지난해 광물생산량이 그 전해에 비해 4% 증가하였다.

최근 이 나라 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중국에서 자동차부속품생산

피속의 종양세포를 죽이는 나노립자 개발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최근 피속의 종양세포를 죽이고 암의 전이를 막는 나노립자를 개발하였다.

이 나노립자는 점성이 있으며 구체모양이라고 한다.

연구사들은 이전부터 암세포를 죽이는데 리용해오던 단백질들을 이 나노립자에 부착시켰다. 그것을 피속에 주입하면 백혈구세포에 붙어다닌다.

실험결과에 의하면 나노립자가 붙은 백혈구세포들은 피줄을 따라 돌다가 기본종양으로부터 떨어져나와 다른 장기들에로 이동하려는 종양세포들을 제거해버린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오늘의 세계

세계적인 추세 — 록색건축

지구의 자원위기의 심각성과 생태환경보호의 중요성으로부터 세계적으로 건축분야에서도 근본적인 발전이 일어나고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건축을 대표하며 세계건축발전에서 하나의 추세로 되고있는 록색건축이다.

록색건축은 생태학의 원리를 응용한것으로서 자연환경과 자원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보장해주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다시말하여 건축물의 리용에서 자원과 에네르기소모를 최소화하여 오염발생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생태환경을 적극 보호하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편리하고 건강에 리로운 조건을 보장해주는것이다. 이로부터 세계적으로 적지 않은 나라들이 록색건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 발전에 큰 힘을 넣고있다.

우선 현대과학기술수단과 방법들에 의거하여 건축에네르기를 절약하고 재생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하는데 주의를 돌리고있다. 건축에네르기는 건축물의 건설과 사용과정에 소비되는 전체 에네르기이다.

세계적으로 전체 에네르기소비의 40～50%를 건축에네르기가 차지하므로 많은 나라들에서는 건축에네르기절약을 중요한 고리로 보고 이 사업을 오래전부터 다그쳐왔다.

건축에네르기절약을 위한 2050년까지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현하고있는 도이췰란드에서는 1995년이후부터 건축면적 1㎡당 년간전력소비기준을 이전의 200kWh로부터 100kWh로 낮게 정하고 이 사업을 근기있게 내밀고있다. 이밖에도 건축에네르기에서 난방에네르기가 적지 않은 몫을 차지하고 절약예비도 많다는것을 인식한 많은 나라들에서 난방에네르기소비기준을 낮추는 등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단마르크, 영국 등 유럽나라들에서는 건물보온기준을 여러차례 갱신하여 살림집 1㎡당 난방에네르기소비를 50%이상 줄이였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건물보온기준을 3차례나 갱신하여 난방에네르기소비를 60%정도 줄인 결과 1990년대 중엽부터는 1973년이전에 비하여 난방용연료를 2 600만t씩 절약하였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지난 시기 살림집 1㎡당 난방에네르기소비가 유럽나라들에 비하여 3배정도 되였었다. 중국은 이것을 낮추기 위해 1996년부터 2010년까지 3단계에 걸쳐 건물보온기준을 갱신하였으며 지금은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실행해나가고있다.

건물보온을 위한 에네르기절약형창문을 받아들이는데 관심이 돌려지고있다.

최근 10년동안에 에네르기절약과 관련한 저복사밀봉결층유리창문의 도입률은 서유럽나라들에서 1995년이후부터 90%까지 늘어났다.

여러 나라들이 건축에네르기를 줄일수 있는 건물구조와 건설재료들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최근 중국에서 《광동성 록색건축행동실행방안》, 《귀주성 록색건축행동실행방안》 등 4개 지방의 록색건축행동실행방안이 련이어 작성발표되였다. 이 방안들은 모두 공업화생산에 적합한 강철구조 등을 적극적으로 보급할것을 중점적으로 제기하고있다.

중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가 추산한데 의하면 제12차 5개년계획기간에 에네르기를 절약하고 이산화탄소방출량을 줄일수 있는 중점대상건설에 2조 3 660억RMB.Y이 투자될것이며 2020년전까지 에네르기절약형건축물건설에 1조 5 000억RMB.Y의 자금이 지출될것이라고 한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계획이 중국의 록색건축산업에 발전의 기회를 가져다줄것이라고 전하고있다.

유럽과 오스트랄리아 등에서도 조립식강철구조의 건축물이 국내총건축물에서 5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지열, 태양열, 풍력 등 재생에네르기의 리용률도 높아지고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건강에 유익한 실내환경과 건축물내외부에 록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도시수림화가 추진되고있다. 도시수림을 형성하면 생태환경을 개선할뿐아니라 물원천을 마련하고 도시의 랭난방보장에 드는 에네르기소비를 줄일수 있으며 적지 않은 경제적리득을 얻을수 있다.

많은 나라들이 도시수림을 교외로 확대하면서 도시수림생태망을 형성하려 하고있다.

로씨야의 모스크바교외에는 10km폭의 고리형생태보호림이 조성되였다. 도이췰란드의 본교외에도 고리형수림이 형성되여 도시생태환경을 개선하는데서 큰 역할을 하고있다고 한다.

록색건축에로 나아가는 세계건축발전의 추세에 맞게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는 나라들은 계속 늘어나고있다.

본사기자 박송영

일본에서 높은 농도의 방사성물질 계속 검출

일본의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부근에서 방사성물질이 계속 검출되고있다. 최근 도꾜전력회사는 바다가로부터 멀지 않은 2호원자로건물근처에 새롭게 판 관측용우물의 지하수에서 방사성세시움이 L당 7만 6 000Bq의 높은 농도로 검출되였다고 밝혔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최고수치에 달한다고 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병력손실 증대

아프가니스탄에서 항쟁세력의 맹렬한 공격으로 미군의 병력손실이 증대되고있다. 미국의 AP통신은 아프가니스탄전쟁개시이래 이달 18일까지 이 나라에서 죽은 미군수가 2 173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한 부상자수는 1만 9 650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분쟁문제는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종족 및 교파들사이, 정치세력들사이의 분쟁이 의연히 지속되고있다. 서로의 대립과 모순이 격화되여 그것이 물리적충돌로 확대되고있다.

아프리카의 분쟁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남부수단에서는 지난해말부터 시작된 정부군과 반정부군사이의 군사적충돌로 수많은 사상자와 피난민이 발생하였다. 중앙아프리카에서는 종족들사이의 류혈적인 충돌로 최근에만도 7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계속되는 폭력사태로 이 나라의 경제는 파괴되고 사회적무질서가 조성되고있다. 많은 사람들이 피난의 길에 오르고있다. 유엔피난민고등판무관이 밝힌데 의하면 이 나라에서 분쟁이 심화되면서 93만 5 000여명이 이웃나라로 피난하였다고 한다. 말리에서도 정부군과 반정부군사이의 분쟁이 더욱 확대되여 여러 나라들이 군사적으로 개입하였다.

아시아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제국주의자들의 분렬리간책동으로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충돌과 분쟁이 그치지 않고있다.

이라크가 그 대표적실례이다.

날이 갈수록 더욱 치렬해지는 종족 및 교파들사이의 분쟁으로 하여 숱한 사상자들이 나오고있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8 000여명이 죽고 1만 8 000여명이 부상당하였다.

세계도처에서 지속되고있는 분쟁문제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사회건설을 지향하고있는 나라들의 노력에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고있다.

하다면 인류의 번영과 발전에 지장을 주는 분쟁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아프리카의 분쟁문제를 놓고 보자.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15세기부터 아프리카에 손을 뻗치기 시작한 서방식민주의자들은 저들의 목적과 리해관계에 맞게 아프리카대륙을 제 마음대로 칼질하여 나누어가졌다. 그들은 지역의 복잡한 종족 및 민족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것은 한 종족과 민족이 여러 지역으로 갈라지게 하고 또 한 나라에 여러 민족 및 종족들이 살도록 만들어놓았다. 이로 하여 아프리카의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종족 및 민족문제가 발생하게 되였으며 그것이 분쟁으로까지 번져지게 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이것을 악용하여 아프리카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손쉽게 실현하였다. 아프리카에서 식민지체계가 종식된 후에는 교활한 방법으로 분쟁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그것을 지역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군사적개입의 구실로 삼았다. 그들은 《중재》의 간판밑에 아프리카의 분쟁문제에 머리를 들이밀고 이래라저래라 하면서 지역나라들의 내정에 로골적으로 간섭하였다. 그런가 하면 《평화유지》의 미명하에 침략무력을 들이밀고 군사기지를 설치하였다. 저들의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반대파세력을 부추겨 소요를 일으키게 하고는 그들을 《인권옹호》투사로 추어주고 자금과 무기까지 대주면서 정변에로 내몰았다.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책동으로 아프리카에서는 2007년말부터 1년반도 못되는 사이에 10여개 나라들에서 소요와 군사정변이 일어났다.

미국은 이라크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다. 미국은 이라크침공전야에 시아파와 순니파, 소수민족들사이에 쐐기를 박기 위해 순니파가 정권지반강화를 위해 시아파와 쿠르드족을 마구 탄압하고 죽인다는 소문을 내돌렸는가 하면 시아파와 쿠르드족에게는 자기 보호를 위해 힘을 키워야 한다고 부추겼다. 이라크에서는 민족 및 교파들사이의 모순이 표면에 드러나게 되였다. 미국은 이것을 좋은 구실로 삼고 《반테로》와 《인권보호》의 간판을 내들고 이라크를 침공하였다. 그후 사태는 더욱 험악하게 되였다. 민족간, 교파간의 모순이 폭발하면서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로 번져지게 되였다. 미국의 책동으로 하여 이라크에서는 민족 및 교파들사이의 대립과 분쟁이 날이 갈수록 첨예화되였으며 이라크땅은 테로와 보복, 파괴와 략탈의 란무장으로, 무시무시한 공포지대로 전락되였다.

모든것은 명백하다.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지속되고있는 분쟁의 근원은 전적으로 제국주의자들에게 있다. 제국주의자들때문에 분쟁이 끊기지 않고있다.

현실은 많은것을 시사해주고있다.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분렬리간책동을 각성있게 대하지 않고 그것을 미리막지 못한다면 엄중한 후과가 초래된다는것이다. 일부 나라들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중재》타령에 귀를 기울이는 현상이 나타나고있는데 이것은 제손으로 제눈을 찌르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제국주의자들의 개입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

자기 집안의 문제는 자체의 힘으로,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 이것만이 분쟁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이룩할수 있는 길이다.

여러 나라들의 실태가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미 여러 나라들이 자체의 힘으로 분쟁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섰다. 분쟁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풀어나가려는 나라들이 늘어나고있다.

얼마전 아프리카나라들의 적극적인 중재밑에 남부수단정부와 반정부단체사이의 회담이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시작되였다. 이보다 앞서 민주꽁고정부와 반정부세력사이의 평화협정이 케니아에서 체결되였다. 이로써 민주꽁고의 분쟁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였다. 협정에 따라 민주꽁고의 동부지역에서 벌어지던 3월23일운동의 반정부무장활동이 중지되고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화해,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게 된다고 한다.

모든 사실은 분쟁의 피해를 입고있는 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분렬리간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나갈 때 나라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발전을 이룩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김수진

ㄱ-410308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